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38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특 문학 현대소설 4 p.170~173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원체 예쁘장한 상판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마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옥임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찌 점점 더 젊어 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하고 새롭새롭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옥임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마는, 밑도 끝도 없이 꺠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 언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섰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나려나? 이젠 무슨 객설야.”

하고,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 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쩌쩌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욕을 줌 단단히 배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사장 보아서 썩 변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두 마다니, 남의 돈 생으루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구 뭐냐?”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대나?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난 말 이야.”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에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에게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 보려 들겠대던!”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피어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려고 섰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옆의 골로 줄달음질을 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옥임이는 저대로 간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 보았을까, 40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 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라. 머리를

곱게 지지고 얇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맥 유한마담이지, 설마 1할, 1할 5푼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올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덤빈 것이다. 중경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간이며 땅섬지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솔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소리를 하지는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뺨이 되는 것이다.

[A]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쫓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결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섯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 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 고 가슴속이 고 무언지 멍치고 비비 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멍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게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은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베프기는 하였지마는, 열떨결에 나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냐 무어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B]

(중략)

“오늘은 아퀴\*를 지어 주시렵니까?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인데 그걸루 의 상할 거야 있나요?”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김옥임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 못견디겠어요. 예전

에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구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 나구, 엘렌 케이\*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가 동냥자루 같은 돈 전대를 차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랑 돈뽀로 보이 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뽀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았는 나두 붙쌍한 신세지마는 난 옥임이가 가없어서 어제 울 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인 가 보더군요…….”

정례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뻗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 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두 듣기에 좀 괴란쩍습니다마는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 먹고 등쳐 먹고 알로 먹고 핑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 까…… 허허허.”

하고, 교장은 자기변명인지 옥임이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날 정례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따위 돈은 안 값아도 좋으니 정장을 하든 어찌든 마음대로 하라구 내버려 두세요.”

하며 팔팔 뛰는 것을 모른 척하고 20만 원 표에 이만 원 현금을 엮어서 옥임이 갖다가 주라고 내놓았다.

- 염상섭, 「두 파산」

\*반민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 일파의 행위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 정한 법률.

\*아퀴: 일을 마무리하는 끝매듭.

\*엘렌 케이: 스웨덴의 여성 운동가.

\*명토: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지적. 여기에서의 문맥적 의미는 어떠한 이유.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시대 상황에 대한 언급을 토대로 인물의 현재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B]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의 유년 시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는 서술자의 주관에 배제하여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B]는 서술자의 주관에 따라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 ③ [A]는 ‘-나다’의 현재형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B]는 고백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는 인물의 행적과 내력을 바탕으로 인물의 변화된 모습을 언급하고 있으며, [B]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과 함께 인물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이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B]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2. 길바닥과 구멍가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길바닥’에서 발생한 옥임과 정례 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에서 정례 모친과 옥임의 대면을 통해 해결된다.
- ② ‘길바닥’에서 벌어진 옥임과 정례 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를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정례 모친의 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길바닥’에서는 표면화되지 않던 옥임과 정례 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에 대한 정례 모친과 교장의 대답으로 인해 처음으로 부각된다.
- ④ ‘길바닥’에서 일어난 옥임과 정례 모친의 충돌은 ‘구멍가게’를 지키려 애쓰는 정례 모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옥임의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가 된다.
- ⑤ ‘길바닥’은 옥임이 정례 모친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공간이며, ‘구멍가게’는 교장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옥임과 정례 모친 간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공간이다.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옥임의 갑작스러운 언행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 ② ㉡: 여러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피하려 애쓰고 있다.
- ③ ㉢: 옥임의 행동이 빛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갑자기 사라져 버린 옥임을 걱정하고 있다.
- ⑤ ㉣: 마음속에 맺혀 있는 감정을 풀어 보려 스스로 애쓰고 있다.

4. <보기>를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두 파산」은 해방 후 여기저기에서 빌린 돈으로 구멍가게를 하게 된 정례 모친과 그녀의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엮힌 인물들을 통해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등 자본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해방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작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매달리며 오랜 친구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잇속을 차리는 옥임, 옥임과 정례 모친 사이의 금전 관계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전직 교장 등이 등장한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례 모친의 삶은 그녀가 애초에 의도했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생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갚아 나가는 기계적인 과정으로 전락한다. 이를 통해 제목인 '두 파산'은 해방 직후 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유형의 파산, 즉 경제적 파산과 정신적 파산을 맞게 된 인간 군상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세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고 다니거나 '엘렌 케이의 송배자'를 자처하던 옥임이 이제는 '돈 밖에' 모른다며 '체면'과 '우정'도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격 파산'이라는 그녀에 대한 평가가 정신적 파산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 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찢찢거리구'다닌다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을 통해, 자기대로 살길을 찾으려는 옥임의 절박함과 불안이 과거와 달리 속물스럽게 변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차리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례 모친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원래 의도했던 삶의 형태가 스스로 노력하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자신의 삶을 '살림'이 '파산 지경'인 것으로 언급하며, 빚 갚기를 독촉하는 듯한 '교장'에게 돈을 건네주는 모습을 통해, 빌린 돈을 갚는 것에 급급하며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된 정례 모친의 상황을 알 수 있군.
- ⑤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라거나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 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이라고 말하는 '교장'을 통해, 해방 이후 사람들이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